

2014년 창작뮤지컬 우수공연 지원사업 심사평

- 일시 : 2014. 6. 23(월) ~ 6. 26(목) 09:00~18:00
- 장소 :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 심의위원 : 변희석, 원미솔, 조광화, 추민주, 현수정 (가나다 순)

2014년 창작뮤지컬 우수공연 지원 사업은 대본 공모와 시범공연 지원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실연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사업이다. 2013년 창작산실 대본 공모 선정작 5편과 2014년 시범공연 지원 선정작 6편이 이번 실연 심사에 참가하였고, 최종 8편을 우수공연 지원 선정작으로 결정하였다.

심의를 위해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공연 실연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하였다.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으며, 모든 작품은 동일한 조건 하에 시범공연을 하였다.

이번 실연심사에서는 여러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으며, 실험적인 음악극 스타일부터 드라마의 치밀함이 강조되거나 콘서트의 느낌을 주는 작품들까지 다양하였다. 이중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고 소재의 신선함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500석 이상 중·대극장 작품으로 총 3편을 선정하였다. <런웨이비트>는 ‘패션’이라는 소재의 참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포함한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음악과 드라마의 결합이 더 스케일 있게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모티프로 명확하게 캐릭터를 구현해낸 점이 우수했다. <곤더버스커>는 소재가 신선하며 점점 상업화되어가는 뮤지컬계의 흐름을 담은 자기반영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자유로움’을 폭발시키는 에너지에 더 집중하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 <파리벨리>는 ‘카스트라토’라는 소재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음악의 극성과 캐릭터의 깊이를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00석 이하 소극장 작품으로 총 5편을 선정하였다. <아보카토>는 드라마보다는 짙은 정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단순한 플롯을 보완하는 노력과 연출과의 효과적인 협업을 기대한다. <뮤지컬A>는 수정·보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명작을 바탕으로 주제의 식과 드라마의 치밀함 그리고 음악적인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양식적인 연출의 구현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가야십이지곡>은 음악적으로 매우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적인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장면구성이 더 명확해져야 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기대한다. <봄날>은 전형적인 뮤지컬에서 벗어나

‘플레이 워드 송스’의 느낌으로 더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해설의 문학과 아름다운 언어가 돋보였다. 여백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나 인형 등을 활용한 연출적인 장치에 보완이 되길 바란다.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는 ‘야구’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다룬 스포츠뮤지컬로 새로운 소재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소재의 차별성을 드라마와 음악에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캐릭터와 갈등 원인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

아쉽게도 이번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도 시범공연을 준비하며 작품의 수정 보완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춤춰! 로기수!>는 드라마의 깊이와 송 앤 댄스의 환상이 돋보일 수 있는 작품이지만, 1막만을 시연했다는 점에서 작품을 공정하게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녹턴>은 발레와 클래식을 소재로 다룬다는 점에서 스타일의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구성이 느슨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안무의 콘셉트가 막연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사랑병원 1004호>는 다양한 계층의 삶의 이야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드라마 전개 방식에 있어서 다소 진부함이 느껴지며 뮤지컬 음악으로서 드라마를 잘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창작 뮤지컬은 각 작품마다 특징에 맞는 창작진들이 모여 작품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협업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은 <2014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본 공연으로 관객 앞에 서는 날까지 창작진들 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우수 레퍼토리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창작뮤지컬 우수공연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